# X truetype 폰트 사용하기 미니 하우투

임 은재, (eunjea@kldp.org) 마지막 수정일 2000년 7월 25일

본 문서는 X 에서 트루타입 폰트 사용 방법에 관한 짧은 글입니다.

## 목 차

**제 1 절 소개** **1**

**제 2 절 X 서버** **1**

**제 3 절 폰트 설정(X 3.3.X, 4.0.X 동일)** **2**

**제 4 절 폰트 사용하기** **4**

4.1 netscape . . . . . 4

4.2 gtk . . . . . 4

4.3 X 윈도 매니저 . . . . . 5

4.4 한텀 . . . . . 5

**제 5 절 참고, 맺는말** **6**

## 제 1 절 소개

X 에서 원도그의 굴림체, arial 등의 truetype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많이 오기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할것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필자에게 언제 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 2 절 X 서버

XFree86-3.3.X 대에서는 freetype 패키지 *http://freetype.org* <http://freetype.org> 와 xtt 패치가 필요합니다. *http://X-TT.dsl.gr.jp/* <http://X-TT.dsl.gr.jp/>

한국의 배포본들에는 대부분 이미 패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X 4.0.X 에는 이미 freetype, xtt 패키지가 들어 있으므로, 설정 파일(/etc/X11/XF86Config)에서 모듈만 읽어들이면 됩니다.

---

```
Section "Module"

        Load "xtt"

EndSection
```

위와 같이 본인의 설정파일에 Load "xtt"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주의할것은 "freetype" 모듈을 동시에 읽어들이면 안됩니다.

추가로 트루타입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한글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파일이 있습니다.

/usr/X11R6/lib/X11/locale/ko/XLC_LOCALE 를 살펴보시고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
.......
#  fs1 class
fs1   {
   charset  {
      name  KSC5601.1987-0:GL
   }
   font  {
      primary  KSC5601.1987-0:GL
      substitute KSC5601.1987-0:GL # 이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END XL_FONTSET
.......
.......
```

# 제 3 절 폰트 설정(X 3.3.X, 4.0.X 동일)

```
mkdir /usr/X11R6/lib/X11/fonts/truetype/
cd /usr/X11R6/lib/X11/fonts/truetype/
ln -sf /mnt/harde/hwin98/fonts/gulim.ttc .
ln -sf /mnt/harde/hwin98/fonts/arial.ttf .
ln -sf /mnt/harde/hwin98/fonts/times.ttf .
....
....
```

위와 같이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truetype 폰트를 복사해 넣거나, 원도그 파티션이 존재 한다면 링크 해줍니다.

아직까지 truetype 폰트에 대한 fonts.dir 파일을 제대로 생성해주는 툴이 없으므로 직접 손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폰트들이 들어 있는 디렉토리에 fonts.dir 이라는 파일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만듭니다.

```
14
eb=y:fn=0:gulim.ttc  -ms-gulim-medium-r-normal--0-0-0-0-c-0-ksc5601.1987-0
eb=y:fn=0:gulim.ttc  -ms-gulim-medium-o-normal--0-0-0-0-c-0-ksc5601.1987-0
eb=y:ab=y:gulim.ttc  -ms-gulim-bold-r-normal--0-0-0-0-c-0-ksc5601.1987-0
eb=y:ab=y:gulim.ttc  -ms-gulim-bold-o-normal--0-0-0-0-c-0-ksc5601.1987-0
eb=y:fn=2:gulim.ttc  -ms-dotum-medium-r-normal--0-0-0-0-c-0-ksc5601.1987-0
eb=y:fn=2:gulim.ttc  -ms-dotum-medium-o-normal--0-0-0-0-c-0-ksc5601.1987-0

arial.ttf -ms-Arial-medium-r-normal--0-0-0-0-p-0-iso8859-1
ariali.ttf -ms-Arial-medium-i-normal--0-0-0-0-p-0-iso8859-1
arialbd.ttf -ms-Arial-bold-r-normal--0-0-0-0-p-0-iso8859-1
```

```
arialbi.ttf -ms-Arial-bold-i-normal--0-0-0-0-p-0-iso8859-1
times.ttf -ms-times-medium-r-normal--0-0-0-0-p-0-iso8859-1

arial.ttf -ms-Arial-medium-r-normal--0-0-0-0-p-0-koi8-ru
comic.ttf -ms-Comic-medium-r-normal--0-0-0-0-p-0-iso8859-1
comicbd.ttf -ms-Comic-bold-r-normal--0-0-0-0-p-0-iso8859-1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최준호님의 글을 읽어 보십시요. *http://www.kr.freebsd.org/~cjh/freetime/x11/xtt/* <http://www.kr.freebsd.org/~cjh/freetime/x11/xtt/>

위의 설정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해당 폰트들이 존재해야 겠죠.

이제 본인의 XF86Config 설정파일에 해당 폰트 경로를 넣어 줍니다.

```
Section "Files"
........
........
FontPath "/usr/X11R6/lib/X11/fonts/truetype/"
........
........
EndSection
```

요즘 배포본들을 살펴보니 xfs 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더군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xfs 를 죽이고 직접 로딩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제 설정 파일의 일부 입니다.

```
Section "Files"
    RgbPath "/usr/X11R6/lib/X11/rgb"
   FontPath "/usr/X11R6/lib/X11/fonts/100dpi:unscaled"
   FontPath "/usr/X11R6/lib/X11/fonts/misc:unscaled"
   FontPath "/usr/X11R6/lib/X11/fonts/75dpi:unscaled"
   FontPath "/usr/X11R6/lib/X11/fonts/100dpi/"
   FontPath "/usr/X11R6/lib/X11/fonts/misc/"
   FontPath "/usr/X11R6/lib/X11/fonts/75dpi/"
   FontPath "/usr/X11R6/lib/X11/fonts/truetype/"
   FontPath "/usr/X11R6/lib/X11/fonts/ttfonts/"
   FontPath "/usr/X11R6/lib/X11/fonts/cyrillic/"
   FontPath "/usr/X11R6/lib/X11/fonts/Speedo/"
   FontPath "/usr/X11R6/lib/X11/fonts/Type1/"
   FontPath "/usr/X11R6/lib/X11/fonts/PEX/"
   FontPath "/usr/share/fonts/default/Type1"
EndSection
```

X 를 다시 시작합니다.

xfontsel 을 실행시켜 fndry 를 ms로 fmly를 gulim 으로 해봅니다. 이때 굴림체가 보이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만약 해당 폰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거나 글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이글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

그림 1: netscape에서 굴림체와 arial 트루타입 폰트를 사용한 예

# 제 4 절 폰트 사용하기

## 4.1 netscape

설정탭으로 들어가 폰트 관련을 살펴봅니다.

```
For the Encoding: Korean(ks c 5601-1987)
Variable Width Font: Gulim (Ms)
size는 0으로 해둡니다. (뒤에 따로 폰트 크기 설정을 설명 하겠습니다.)
Allow Scaling 은 enable 로 해줍니다.

영문 폰트는 저의 경우 arial 을 씁니다.
For the Encoding: Western(iso-8859-1)
Variable Width Font: Arial (Ms)
역시 size는 0, Allow Scaling 은 enable 로.
```

ok 를 눌러준후 netscape을 다시 시작하여 *http://kldp.org* <http://kldp.org> 를 한번 둘러봅니다 ;-)

글자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구요? 바꿔 줍시다. 본인의 home 디렉토리에 있는 /.Xdefaults 에 다음을 추가 한다음,

```
Netscape*documentFonts.defaultFont*ks_c_5601-1987.prop: ms-gulim-160-scale
Netscape*documentFonts.defaultFont*iso-8859-1.prop:  ms-arial-160-scale
```

xrdb -load /.Xdefaults 해줍니다.

이제 다시 netscape 를 재실행 하여 글자 크기를 본후 본인이 맘에 드는 폰트크기로 조절합니다. .Xdefaults에 넣어 놓았던 숫자를 바꿔가며 위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지요?

## 4.2 gtk

다음은 본인의 gtkrc 설정 파일중 일부입니다. 설치 형태에 따라 gtkrc 가 위치해 있는 곳이 다릅니다. 보통 /usr/share/gtkrc 또는 /usr/local/etc/gtk/gtkrc 입니다.

```
style "default"
{
   fontset = "-adobe-helvetica-bold-r-*-*-15-*-*-*-*-*-iso8859-1,\
```

그림 2: gnumeric

```
            -ms-gulim-medium-o-normal--0-140-0-0-c-0-ksc5601.1987-0"
}
```

위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영문 폰트 다음에 굴림체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림은 gnumeric 의 모습입니다.

## 4.3 X 윈도 매니저

영문 레드헷에 패키징되어 있는 X 윈도우 매니져들은 i18n 옵션을 빼고 패키징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제대로 표시되려면 재 컴파일이 필요한데 저의 경우 Afterstep을 사용하므로 소스를 받아다 ./configure –enable-i18n 을 주고 컴파일해서 사용중입니다.

다음 한글폰트 설정은 사용할 look 파일의 Font 항목에 다음과 같이 영문 폰트명 뒤에 한글 폰트명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
Font -adobe-helvetica-medium-r-*-*-12-*-*-*-*-*-*-*,
-ms-gulim-medium-o-normal--0-120-0-0-c-0-ksc5601.1987-0
```

다른 윈도우 매니저들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메뉴등에 한글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X 윈도 매니저들의 한글 사용에 대한 것은 *http://kldp.org/~mindgame/unix/hangul/* <http://kldp.org/~mindgame/unix/hangul/> 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 4.4 한텀

한텀에서 폰트사용은 다음과 같이 직접 폰트를 지정해 주거나

hanterm -hfn -ms-gulim-medium-o-normal–0-190-0-0-c-0-ksc5601.1987-0 -fn *-normal-*-c-100-iso8859-1

항상 적용 시키려면 .Xdefault 에

```
Hanterm*hangulFont: -ms-gulim-medium-o-normal--0-190-0-0-c-0-ksc5601.1987-0
Hanterm*Font: 8x13bold
```

와 같은 문장을 넣은 다음 xrdb -load /.Xdefaults 해준후 한텀을 실행시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영문 폰트와 한글 폰트의 크기를 적당하게 바꾸어 줍니다.

그림 3: 한텀에서 굴림체를 사용하여 slrn 을 실행시킨 모습입니다.

## 제 5 절 참고, 맺는말

써놓고 보니 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맘에 들지 않네요 :-(

하지만 앞으로 더 추가,수정 해서 더 낳은 문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리눅스에서의 한글 사용에 힘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